

1. 옥상 / 낮

덜컹- 옥중한 문을 열고 나오는 동희. 보면, 영이 기다리고 있다.

동희 (다가가는) 뭐야? 바쁜데..용건만 얘기해.

동희, 무뚝뚝한데..영은 왠지 여유로운 느낌.

영 나 돈 줘.

동희 ...뭐?

영 ..나한테 꺾었던 거 있잖아..다 해서 300만원정도 해. 얼른 갚아야지.

동희, 황당하다는 듯 얼빠진 얼굴인데.

동희 무슨 돈 얘기하는거야?

영 ...너 노트북 살 때 내가 돈 보탠거랑 데이트할 때 짬짬이 빌려간 거..
그리고 작년 내 생일때 백화점 갔다가 내 선물은 시디 한 장 사주고
너 양복 세일한다고 내 카드로 50만원 긁었잖아. 다 하니까 대충 300 나오더라.

동희, 어이가 없는 듯..잠시 할말을 잃었다가.

동희 야, 너 노트북 다 부셔놨더라? 수리비가 샀던 거보다 훨씬 비싸서 그냥 버렸어.
그리고 너 이번 달 핸드폰비 70만원 넘게 나온 거 모르지?
데이트할때마다 내가 돈을 빌렸다고? 만날때마다 내가 술 사고, 밥 사고, 옷 사주고, 늦으면 택시로 집 앞
까지 데려다주고. 너 지금 그 돈 내놓으라는 말이 나오냐?

영, 동희를 비웃듯 코웃음 친다.

영 내가 니 방 꼬박꼬박 청소하고, 밥 해주고, 반찬 몰래 싸다 주고. 파출부노릇 다 한거 따졌으면 니 연봉도
모질라. 그거 계산 안한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알아.
데이트할 때 니가 돈 썼다고 착각하는 모양인데 나 너 만날 때마다 배고파서
맨날 밥먹고 나갔어. 니가 어쩌다 가끔 살때도 제일 싼것만 시키고.
그래도 너는 눈치를 그렇게 줘서 사람 기분 옛같이 만들었지.

동희 아니, 누가 눈치를 줬다 그래!

영 줬어! 조금만 비싼 거 시키면 하루종일 말도 안 하고.

자존심이 상하는 듯. 얼굴이 울그락 불그락해지는 동희.

영 돈 내놔.

동희 맘대로 해. 배째.

영, 그럴 줄 알았다는 듯 핸드폰을 꺼낸다.

영 그럼 니 여자친구한테서 받아내도 돼지?

동희 ...!

영 (번호 누르며) 이름이 효선이... 주효선. 010에...

동희 너 뭐야 지금.

동희, 순간적으로 영을 뺏친다. 핸드폰을 뺏으려는 동희. 핸드폰을 뺏기지 않으려는 영.

동희 너 안 내놔? 어떻게 알았어?

영 맘대로 하래매!!! 너 그 여자애한테도 똑같이 하지? 너 밖에 모르고 지 잘난 척이나 해대고!! 사람 개무시 하고!! 다 얘기할거야. 다 얘기해서 니 정체 다 폭로할거야!!

결국 동희, 핸드폰을 빼앗고 영은 다시 되찾으려 엇치락 뒤치락 하는데.

동희, 영의 핸드폰을 놓치고, 핸드폰은 옥상 아래로 떨어진다. 도로에 떨어져버린 핸드폰.

두 사람, 아래를 바라보면 도로를 뺑뺑 달리는 차들이다. 황당해하며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동희를 바라보는 영.

동희도 왠지 미안하기도 하고 당황되기도 하는 듯.

동희 너 나한테 왜 이래? 아직도 나 좋아하냐?

영 (쏘아보며) 착각하지 마. 나 너 좋아한 적 한번도 없어.
니가 나 하도 따라다녀서, 불쌍해서 만나 준 거 뿐이야.
그러니까 너, 내 돈 떼먹을 생각 하지마.

동희 (질린다는 듯...바라보는)

2. 화장실 앞 / 밤

영..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동희와 마주친다. 서로를 무시하고 지나가려는데...

동희 ..저기..

영 (뒤돌아보는) 네?

동희 ..아니..아까는 못 온다더니..어떻게 왔네?

영 어.. 일이 취소가 돼서.

동희 ..일이 맘대로 가볍게 취소가 된다. 나도 그런 일만 있었으면 좋겠네.

영 니가 무슨 상관이야.

동희 아니..사람 괜찮은 거 같던데..잘해봐.

영 응. 내가 봐도 괜찮은 거 같아.

동희 ..(확 기분 상하는) 그래. 내가 있어서 불편한 건 아니지?

영 응. 전혀 아니야. 괜찮아.

동희 ..그래..뭐, 평생 안 볼 사이도 아니고. 어차피 맨날 얼굴 봐야되는데...

편하게 지내자. 헤어졌다고 서로 피하고 그러는 거 웃기잖아.

영 에이 뭐..우리가 애들인가.

동희 ..그래..앞으로는..좀 공적으로만 대하자 서로.

영 ..그래. 당연하지.

하고 영, 뒤돌아 홀로 가려는데...동희,

동희 저기요 장대리님.
영 응?
동희 그..저번에 저한테서 빌려가신 노트북 있잖습니까.
영 (갑작스런 존댓말에 당황하는) ..뭐?
동희 노트북요. 제кен데..잠깐만 쓰겠다고 빌려갔었잖아요. 그거 좀..빨리 줘요. 좋겠어요.

놀리듯, 일부러 '요'를 강조하며 말하는 동희. 그런 동희에 영, 짜증나는 듯

영아 ..그래요..돌려줘야죠. 미안해요. (하고 가려는데)
동희 그래요. 너무 오래 갖고 있는 거 같아요. 빨리 좀 주세요. 예의가 아니잖아요.
영 돌려드릴게요. (하고 가려는데)
동희 빨리요. 좀 급해서. 맨날 말만 그러고 안 주시니까. 이번엔 꼭 지켜주세요.
영 ...알았다니까요.
동희 네..그럼 믿습니다. 수고요~

동희, 화장실로 들어가버리고 혼자 남은 영. 기가막힌다.

3. 복도 / 영의 방 / 숙소 마당 / 밤

동희, 다짜고짜 영의 손을 잡고는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사람들이 미처 말릴 새도 없이 동희에게 끌려 나가는 영.

영 야. 뭐야. 무슨 일인데 그래?! 응? 이거 놓고 얘길 해봐!!
동희 ...(씩씩대며 끌고가는)
영 이거 놓으라니까!! 너 진짜 왜 이래!!

소리 버럭 지르며 동희의 손을 뿌리치는 영. 어느새 두 사람은 숙소 밖으로 나와있다.

동희 ...너...왜 그랬어? 어? 왜 그런거야?
영 ...뭐가?
동희 지금 그 민차장 개새끼가...(눈물이 고이는) 야. 그 새끼가 너한테 무슨 짓을 했는 줄 이나 아냐? 씨발, 너 보고 사람들이. 씨발. (목이 메이는) 대답해. 왜 그랬어? 응?

동희의 반응에 대충 무슨 일인지 짐작이 가는 영. 오히려 차분해지는 영이다.

영니가 뭔데 이래? 그 사람이 나한테 무슨 짓을 하건 말건, 니가 무슨 상관이야?
너 지금 무지 오버하고 있는 거 알아?
동희 씨발!!! 이 병신아!!
영 !!
동희 그래 씨발, 나 상관없어. 니가 어떤 놈 만나서 배신당하던 상처받던 나 상관없어.
근데. 사람 좀 가려가면서 만나면 안되냐? 꼭 그런 개양아치 같은 새끼를 만나서

쫓같은 소문이나 돌게 해야되? 너 바보야? 머리 안 돌아가?

지금 니가 무슨일을 당한 건지 알거나 하냐고!!

영 ...내가 무슨 양아치랑 자고. 무슨 얘기가 돌든. 내 일이야.

이제 너랑 나...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야. 지금 이럴 권리도 너한테 없어.

냉정하게 대꾸하는 영에 동희도 그제야 진정되는 듯...차가운 눈으로 영을 바라본다.

동희 ...그래...내가 미친놈이다. 너따위 년한테 이러는...내가 미친놈이야.

하고 뒤돌아가버리는 동희. 어둠속으로 걸어가는 동희 뒤에다 대고 소리지르는 영.

4. 동희의집 / 낮

짜장면을 시켜 먹고 있는 영과 동희. 동희는 티비를 보며 먹느라 정신이 없는데....

영 ..찬밥 있는데. 줄까? 비벼먹을래?

동희 응.

영 (밥을 비벼주며) 저기...내가 생각을 해봤는데...우리가 헤어졌을때 있잖아.

동희 응.

영 그게..기억이 안 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거 같아..

그게..특별한 일이 아니니까..맨날 비슷비슷한 걸로 싸우고...화해하고..

그런 걸 반복하니까..기억이 안 났던 거 같애..

동희 으응...(밥만 열심히 먹는)

영 그러니까..그 만큼 우리가..오래 만나고..익숙해졌다는거지..

그게 나쁜 건 아닌데..어떻게 보면 좋은걸 수도 있긴 한데...

먹느라 정신없는 동희. 그러나 영, 개의치 않으려 노력하며 얘기를 이어간다.

영 우리가 헤어졌던 것도 어떻게 보면 자극적이고..새로운 걸 원해서...

무의식적으로 그랬던 걸수도 있어....아무리 좋아도..익숙해지면 그걸 모르잖아.

동희 으응..그래..좋은 얘기야.

영 그래서 말인데..우리, 결혼하는게 어떨까?

동희, 순간 얼굴에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다. 한동안 말을 잊지 못하는 동희에 영도 긴장하고...숨이 막히는 정적.

영 ..싫으면..말구. 그냥..당장 하자는 게 아니라..한번 생각해보자구..

동희 ...

영 아니면 일단은 그냥 좀 지내봐도 되고. 급한 거 아니니까. (정적에 당황하는)

나도 그냥 생각나서 얘기해본거니까..너무 부담가지지 말고...신경쓰지 마..

동희 그래. 하자.

영. ..하자고?

동희 ..응. 하자.

그제야 영의 얼굴에 미소가 생긴다. 동희도 기분 좋은 듯..웃는다. 한 입 크게 떠서 밥 먹는 두 사람.